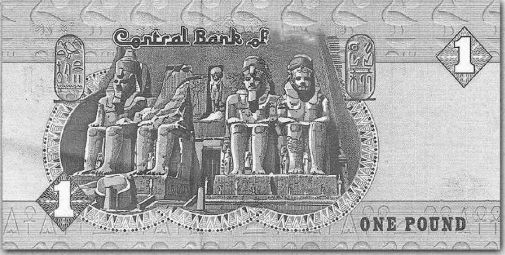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대 화폐 속에 나타난 고대 문명]
나일강에서 피어난



Central Bank of
ONE POUND

◀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석상이 그려진 1파운드 지폐



KENTRAL BANK OF
ONE HUNDRED POUNDS

◀ 기자의 �핑크스가 그려진 100파운드 지폐

- ①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 ②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다.
- ③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겼다.
- ④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⑤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

▶단원 :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주제 : 이집트 문명

▶선지 분석

② 황허 문명, ③ 인더스 문명의 계획 도시, ④ 바빌로니아 왕국, ⑤ 그리스의 폴리스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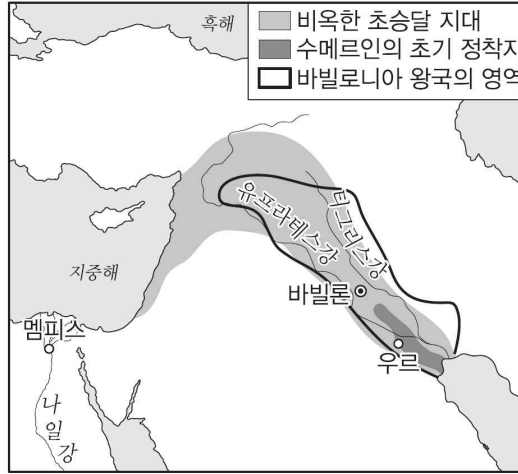
PLUS CHECK!!

▣ 메소포타미아 문명

(1) 성립 :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인이 우르 등의 도시 국가를 세우며 문명을 일으킴

(2) 특징

- ① 정치 :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신정) 정치 실시
- ② 종교 : 현세를 중시하는 세계관(“길가메시 서사시”), 도시마다 지구라트 건설
- ③ 문화 : 쉼기 문자 사용, 태음력과 60진법 사용, 점성술 발달
- ④ 바빌로니아 왕국 : 아무르인이 세움, Hammurabi 법전 편찬



▲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

나는 벨 신에게 부름을 받은 통치자인 함무라비이다.
 제1조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고발인을 사형에 처한다.
 제22조 강도질을 한 사람이 붙잡혔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왕은 이전의 법을 집대성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 법전은 282개의 법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바빌로니아 왕국의 사회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형벌은 복수주의적 성격이 강하였고,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법이 적용되었다.

▣ 이집트 문명

(1) 성립 :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도시 국가들을 통합한 통일 왕국 등장

(2) 특징

- ①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 : 강 주변의 땅이 비옥하여 일찍부터 여러 도시 국가 형성
- ② 발전 :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어짐
- ③ 정치 :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신으로 군림하는 신권 정치 실시
- ④ 종교 : 내세적 세계관(미라, 피라미드, ‘사자의 서’)
- ⑤ 문화 : 상형 문자 사용(파피루스에 기록), 태양력과 10진법 사용, 측량술과 기하학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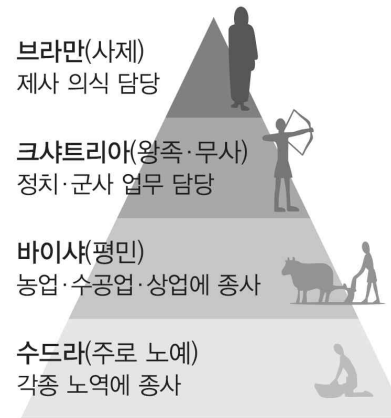
▣ 인도 문명

(1) 인더스 문명

- ① 성립 :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 도시 문명 출현,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
- ② 특징 :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건설(계획도시-벽돌로 쌓은 성벽, 포장도로, 주택, 하수 시설, 공중목욕탕, 곡물 창고 등을 갖추), 청동기와 상형 문자 사용, 인장 사용,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

(2) 아리아인의 이동

- ① 이동 :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 → 기원전 1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의 펀자브 지방에 정착 → 기원전 1000년경 갠지스강 유역 진출
- ② 특징 : 철제 농기구 사용, 카스트제 형성
- ③ 종교 : 브라만교 성립, 자연 현상 등을 찬미하는 “베다” 제작



▲ 카스트제의 신분 구조

▣ 중국 문명

(1) 신석기 문화 : 황허강 유역, 창장강 유역 등에서 발달, 채도와 흑도 등 사용

(2) 하 왕조 : 기록상의 왕조, 청동기 사용

(3) 상 왕조

① 성립 : 기원전 1600년경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등장

② 정치 :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고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신권 정치

③ 특징 : 은허 유적(청동 무기 및 제기, 갑골문), 태음력 사용, 순장의 풍습

(4) 주 왕조

① 발전 : 기원전 11세기경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에 도읍, 황허강 유역 지배 → 창장강 유역까지 세력 확대

② 정치 : 봉건제 시행(왕은 직할지 통치, 나머지 지역은 왕족과 공신을 제후로 삼아 이들에게 봉토로 분배하여 다스리게 함)

③ 특징 : 종법(직계 적장자 상속, 혈연관계) 중시, 천명사상 강조

▣ 고대 지중해 세계 - 그리스 세계의 성립

(1) 폴리스의 성립

① 배경 :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어 통일 국가 형성 곤란

② 성립 : 기원전 10세기경 폴리스(도시 국가) 형성

③ 구조 : 아크로폴리스(종교적·군사적 거점, 신전 건축), 아고라(광장, 집회와 상거래 장소)

④ 특징 : 동족 의식 형성('헬레네스' 명칭 사용, 동일한 언어 사용), 올림피아 제전 개최

(가)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3점]

시(詩)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꺾등으로 흘린다.’는 의미이다.
 (가)의 시인 이백이 현종 때 토번과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장군 등의 이야기를 소재로 지은 시에 나오는 ‘유여동풍사마 이(有如東風射馬耳)’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 개관사정(蓋棺事定)

‘사람은 죽은 뒤에야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가)의 시인 두보가 안사의 난 이후 혼란 속에서 상심에 빠진 청년을 위로하는 시에 나오는 ‘장부개관사시정(丈夫蓋棺事始定)’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 ① 홍루몽을 읽고 있는 신사
- ② 당삼채를 제작하는 기술자
- ③ 사고전서를 편찬하는 관리
- ④ 청명상하도를 감상하는 상인
- ⑤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는 선교사

▶단원 :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주제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당(618 ~ 907)

▶선지 분석

①·③ 청, ④ 북송, ⑤ 명대 마테오리치(1552 ~ 1610)의 활동이다.

PLUS CHECK!!

▣ 당의 발전과 쇠퇴

- ① 건국(618) : 이연(고조)이 장안을 수도로 삼고 수립
- ② 발전

태종	동돌궐 정복, 율령 체제 정비 → 정치적 번영(정관의 치)
고종	서돌궐 정복,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킴 → 영토 확장
현종	경제 발전 등 번영의 시기(개원의 치) → 후기에 균전제, 부병제 약화 등 사회·경제 혼란 발생

- ③ 쇠퇴 : 주변 민족의 위협(7세기 돌궐·토번, 8세기 위구르 등), 현종 때 안사의 난(755~763) 이후 절도사의 독자적 세력 강화 → 중앙 정부의 통치력 약화, 환관의 횡포, 장원의 증가(균전제 붕괴, 농민 몰락) → 황소의 난(875~884) 등 농민 봉기로 더욱 약화
- ④ 멸망 :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907) → 5대 10국 시대 전개
- ⑤ 통치 체제 : 율령 체제의 완성 →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
 - 통치 제도 : 3성 6부(중앙)와 주현제(지방)
 - 농민 지배 :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 8세기 이후 균전제 붕괴 시작, 모병제 시행, 안사의 난 이후 양세법 실시
 - 대외 정책 : 정복 지역에 도호부 설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 정책 실시

▶ 안사의 난

당 현종 때인 755년에 절도사 안녹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으로 9년간 당에 혼란을 가져왔다.

▶ 황소의 난

9세기 후반(875~884)에 소금 밀매를 하던 황소와 왕선지가 주도하여 일으킨 난이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이끌고 튀양, 장안 등을 함락할 정도로 위세가 컸으나 토벌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FINAL CHECK!!

▶ 양세법

8세기 이후 균전제가 붕괴되고 몰락한 농민의 증가로 호구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사의 난 이후 조용조를 대신하여 실시된 수취 제도이다. 가구별로 자산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징수하였다. 명대 일조편법이 실시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 당의 발전과 쇠퇴

⑥ 사회와 경제

- 귀족 중심의 사회 : 문벌 귀족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 독점·특권 차지, 과거제를 통한 관리 선발에서도 문벌 중시
- 농업 생산력 증대 : 화북에서 2년 3작 가능
- 상업 발달 : 비전(일종의 약속 어음) 사용, 상인 조합인 행(行) 출현
- 국제 무역 : 서역 상인들이 사막길·바닷길 등을 통해 당과 교역, 시박사(광저우)를 통해 무역 관리, 수도 장안과 대도시에 각국 유학생·상인 등 왕래

⑦ 문화

특징	귀족적, 개방적이고 국제적 성격
학문	과거제에 힘입어 유학 발달, 공영달이 “오경정의” 편찬(훈고학 집대성, 과거 수험서로 활용)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 여러 승려의 활동(현장, 의정 등이 인도 순례 후 경전 수입·번역), 선종 등 새로운 종파 유행 • 도교 :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융성 • 서역 종교 :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경교), 마니교 등의 유행, 장안에 사원 건립
문학	귀족 취향의 작품 유행, 이백·두보 등의 시인 활약
공예	당삼채(이국적 특색)

FINAL CHECK!!

▶ 시박사

당대에 설치된 해상 무역 관련 사무 담당 관청이었다. 송, 원, 명대까지 존속하였으며, 청대에 해관으로 대체되었다.

(가)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3점]

이 우표는 □(가)에 가나 문자로 쓰인 『겐지 이야기』를 소재로 발행된 것입니다. 우표 속 인물들의 복색은 □(가)에 유행한 국풍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① 난학이 발달하였다.
- ② 데지마가 건설되었다.
- ③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 ④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다.
- ⑤ 산킨코타이 제도가 실시되었다.

▶단원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주제 :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 헤이안 시대(794 ~ 1185)

▶선지 분석

①·②·⑤ 에도 시대(1603 ~ 1867), ③ 645년의 사실이다. ④ 894년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다.

PLUS CHECK!!

▣ 일본의 고대 국가들

① 선사 시대

- 조몬 시대 : 신석기 문화, 조몬 토기와 간석기 사용, 농경 시작
- 야요이 시대 :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금속기 전파, 여러 소국의 성립 → 이후 3세기경 30여 개 소국의 연합체 형성

② 고대 국가의 발전

- 야마토 정권 : 4세기경 성립, 중국과 한반도에서 선진 문물(유학, 불교 등) 수용 → 6세기 말 ~7세기 초에 쇼토쿠 태자가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불교 진흥책 실시(아스카 문화 발달) → 7세기 이후 견수사·견당사 파견, 당의 율령 체제 도입을 통해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 단행(다이카 개신, 645), 7세기 말 ‘일본’ 국호와 ‘천황’ 칭호 사용
- 나라 시대(710~794) : 8세기 초 나라 지역에 헤이조쿄 건설·천도, 견당사·견신라사 파견(문물 수용), 율령 체제 확립, 불교 융성(도다이사 대불전과 불상 제작 등),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등 편찬
- 헤이안 시대(794~1185) : 8세기 말 헤이안쿄로 천도, 군주권 약화, 귀족과 호족이 독자 세력 형성, 지방에서 무사 계층 성장, 9세기 말 견당사 파견 중지, 국풍 문화 발달(고유 문자 ‘가나’ 사용, 주택·관복 등에서 일본 특색 등장)

FINAL CHECK!!

◆ 다이카 개신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 쇄신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정변으로 새롭게 성립된 정권이 추진한 개혁이었다. 지방 행정 조직 확립, 반전수수법 실시, 새로운 조세 제도 시행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 일본 막부의 발전

(1) 무로마치 막부

- ① 성장 :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 개창, 명과 감합 무역 전개
- ② 쇠퇴 : 쇼군의 후계자 분쟁으로 세력 약화, 전국(센고쿠) 시대 시작, 막부 붕괴
- ③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 : 전국 시대 통일, 조선 침략(임진왜란)

(2) 에도 막부

- ① 성립 :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도쿄)에 막부 개창(1603)
- ② 통치 체제
 - 막번 체제 확립 : 쇼군이 중앙과 직할지 지배, 지방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영지(번) 지배권 인정, 산킨코타이제 실시(다이묘 통제)
 - 엄격한 신분제 실시 : 병농 분리, 무사가 농민과 상공업자 지배 → 무사와 상공업자가 거주하는 조카마치 성장
- ③ 대외 정책 :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상인에게 주인장(슈인장) 발급(교역 공신력 상승, 통제 강화) → 17세기 전반 쇄국 정책 실시(크리스티교 포교 금지, 사무역 통제)로 유럽 상인의 왕래 제한(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를 개방하여 무역 허용), 중국·조선과는 교역 지속
- ④ 경제 발전 : 농업 발달, 상품 작물 재배 증가, 도로망 정비로 상공업 발전, 도시 성장 → 조닌(상인, 수공업자) 성장, 도시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 조직
- ⑤ 문화
 - 조닌 문화 발달 : 가부키(노래, 춤 등이 어우러진 연극), 우키요에(인물, 풍속 등을 소재로 한 다색 목판화) 유행
 - 서양 지식 수용 : 네덜란드인을 통해 의학, 천문학, 조선술 등 전래 → 난학(란가쿠) 발달

▶ 주인장(朱印狀)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한 증서로, 문서에 에도 막부의 인장이 붉은색으로 찍혀 있었다.

자료에 나타난 상황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은 훈족의 침입을 피해 판노니아에서 라인강을 건너 아키타니아로 이동하였다. 그 지역을 약탈한 반달족은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안하면서 땅을 요구하였다. 곧이어 다른 게르만족들도 훈족의 침입을 피하거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반달족처럼 이동하였다.

- ① 서로마 제국이 약화되었다.
- ②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③ 델로스 동맹이 붕괴되었다.
- ④ 오스만 제국이 성립하였다.
- 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였다.

▶단원 :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 중세 유럽 사회의 형성과 발전 - 4세기말 게르만족의 이동

▶선지 분석

② 1096년, ③ 기원전 431 ~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 ④ 1229년, ⑤ 로마의 공화정 말기인 기원전 133 ~ 기원전 121년의 사실이다.

▣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

① 게르만족의 이동

- 배경 : 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농경지 필요, 훈족의 이동 → 서고트족의 이동
- 경과 : 여러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으로 이동, 곳곳에 왕국 건설
- 영향 : 서로마 제국 약화 → 게르만족 출신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게 멸망(476)

② 프랑크 왕국의 발전

클로비스	5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 개창, 로마 가톨릭교(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
카롤루스 마르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재로 실권 장악 • 투르·푸아티에 전투(732)에서 이슬람 군대 격퇴
피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황의 지지 속에 카롤루스 왕조 개창 • 롬바르드(랑고바르드)족을 공격하여 얻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교황령의 시초)
카롤루스 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 차지, 곳곳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티교 전파 → 서로마 황제로 대관(800) • 카롤루스 르네상스(궁정 학교 설립, 학문과 고전 연구 후원) → 로마 문화, 크리스티교, 게르만 문화의 융합,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

그는 로마에 와서는 아주 혼란에 빠진 교회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겨울 내내 여기에서 체류를 연장하였다. 이때에 그는 황제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아들였다. 애초 그는 그런 것에 관해 거부감이 있었으므로 그 축제일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사제들이 가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교회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 확실하였다. 그럼에도 그 호칭을 받아들인 것을 로마인들의 황제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으므로, 큰 인내를 가지고 그런 반감을 견뎌 냈다.

- 아인하르트, “카롤루스의 생애” -

▣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

③ 프랑크 왕국의 분열

- 원인 : 카롤루스 대제 사후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 발생
- 과정 : 베르됭 조약(843)과 메르센 조약(870) 체결
- 결과 :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각각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

④ 노르만족의 이동

- 원거주지 : 스칸디나비아 지방 등에 거주
- 이동 : 9세기 말부터 유럽 해안과 내륙 지방으로 본격적 이동
- 왕국 건설 : 노브고로드 공국·키예프 공국·노르망디 공국·노르만 왕조·시칠리아 왕국 등 건설, 원거주지에는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건국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이집트 왕국을 로마의 일개 속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로 이끈 악티움 해전의 영광을 길이 남기기 위해 해전 장소 가까이에 도시를 건설하고 니코폴리스(승리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5년마다 그곳에서 기념 축제를 열도록 했다.

- ① 신학대전을 편찬하였다.
- ② 메르센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③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 ④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였다.
- 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단원 :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 고대 지중해 세계 - 로마의 발전

▶선지 분석

① 1267년 토마스 아퀴나스(1225 ~ 1274), ② 870년, ③ 클레이스테네스(기원전 570 ~ 기원전 508), ④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재위 527 ~ 565)의 업적이다.

PLUS CHECK!!

▣ 로마의 성립과 발전

- ① 건국 : 기원전 8세기 중엽에 도시 국가 로마 건설
- ② 공화정 수립 :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 수립 → 2명의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
- ③ 평민권 성장
 - 상공업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이 중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 담당 → 정치적 권리 요구
 - 호민관직과 평민회 설치
 - 법률의 제정 : 12표법 → 리키니우스법(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 → 호르텐시우스법(평민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짐, 평민이 법률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 획득)

호민관은 원로원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의사당 문 앞에 앉아 원로원의 결정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자신들이 승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옛날에는 'C'라는 문자가 원로원의 포고문에 부기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것은 호민관들이 포고문을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호민관이 평민을 위해 감시를 계속하고 정무관들을 억제하는 데 전념하였을지라도, 정무관이 은장식과 금귀고리를 달고서 공공장소에 나오는 일은 허용하였다. 그런 복장으로 정무관들의 권위에 한층 위엄을 실어 주기 위해서였다.
- 발레리우스 막시무스, "업적과 명언" -

▣ 로마의 팽창과 공화정의 위기

① 로마의 팽창

-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반도 통일
-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기원전 146) : 카르타고에 승리 → 서지중해 패권 장악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정복 → 지중해 대부분 지배

② 로마 공화정의 위기

- 배경 :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라티퐁디움) 경영, 자영농 몰락
-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 농지법 제정(유력자의 대토지 점유 제한), 곡물법 제정(빈민들에게 값싼 곡물 제공) →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
- 정치적 혼란 : 귀족파와 평민파의 권력 투쟁, 노예 반란(스파르타쿠스의 난) 등
- 삼두 정치의 전개 : 제1차 삼두 정치 → 제2차 삼두 정치 → 악티움 해전 이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권 장악

● 스파르타쿠스의 난

기원전 73년 검투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동료들을 이끌고 봉기한 사건이다.

● 삼두 정치

로마 공화정 말기에 실시된 3인의 공동 통치 체제이다. 제1차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제2차 삼두 정치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이끌었다.

▣ 로마 제정의 성립과 변화

① 제정의 시작

- 옥타비아누스가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고 사실상 황제로 군림
- 옥타비아누스가 ‘프린킵스(제1 시민)’ 칭호 사용,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 칭호 부여

② 로마의 평화 시대 : 옥타비아누스 시대부터 5현제 시대까지 200여 년간 평화와 안정을 누림, 최대 영토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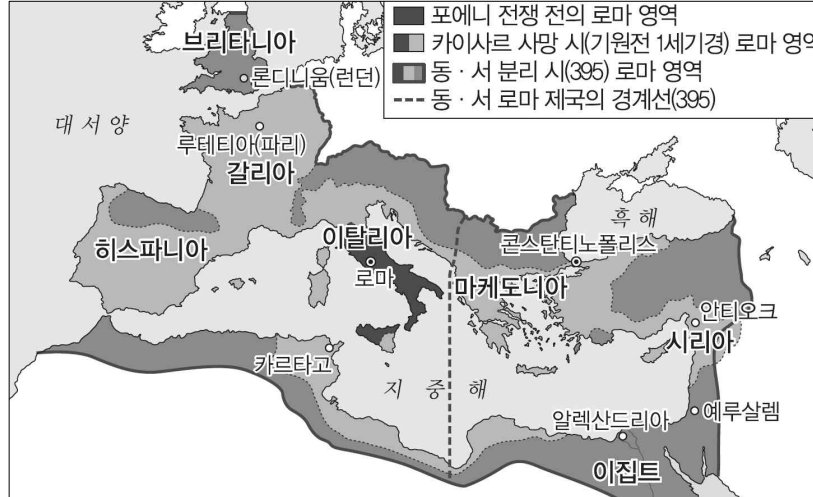
③ 제국의 쇠퇴(3세기)

- 군인 출신 황제가 연이어 등장 → 국정 문란, 이민족의 잦은 침입, 속주의 반란
- 라티퐁디움 대신 부자유 소작인(콜로누스)을 이용한 콜로나투스 운영

④ 제국의 중흥

-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 전제 군주제 도입, 제국의 4분할 통치
- 콘스탄티누스 황제 : 크리스티교 공인(밀라노 칙령, 313),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

⑤ 제국의 분리 :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동로마 제국(비잔티움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 (395) →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476)



FINAL CHECK!!

▶ 콜로나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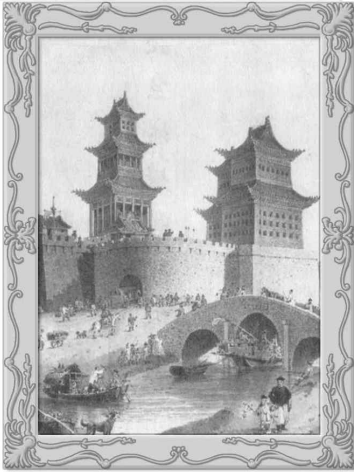
로마의 정복 전쟁이 끝나자 노예 공급이 감소하면서 라티퐁디움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토지를 분할·대여하여 경작하게 하는 소작제가 나타났다. 부자유 소작인(콜로누스)을 이용한 농장 경영을 콜로나투스라고 한다.

▶ 밀라노 칙령(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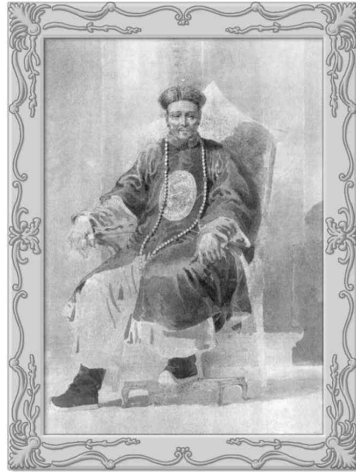
로마의 공동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협의하여 발표한 칙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로써 크리스티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3점]

매카트니 사절단의 눈에 비친 □(가)



웅성과 해자 등이 있는 수도 베이징 서직문의 모습



매카트니의 진술에 따라 그려진 건륭제의 모습

- ① 수시력이 편찬되었다.
- ② 정화의 함대가 파견되었다.
- ③ 광저우에 공행이 설치되었다.
- ④ 마르코 폴로가 수도를 방문하였다.
- 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건립되었다.

▶단원 :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주제 : 동아시아 세계의 성숙 - 청(1616 ~ 1636 ~ 1912)

▶선지 분석

- ① 1281년(원), ② 1405 ~ 1433년(명), ③ 1760년 청 건륭제, ④ 1274년(원), ⑤ 당(唐) 대의 사실이다.

PLUS CHECK!!

▣ 청의 성립과 발전

(1) 성장

건국	누르하치가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 통합 → 후금 건국(1616) → 홍타이지 때 청으로 국호 변경. (내)몽골과 조선 공격 → 순치제 때 베이징 점령(1644)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희제 : 삼번의 난 진압, 타이완의 반청 세력 제압,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옹정제 : 군기처 설치(정책 결정권이 황제에게 집중) 건륭제 : 정복 활동으로 티베트·신장·몽골 등 정복(최대 영토 확보)

(2) 지배 정책

- ① 강경책 : 변발·호복 강요, 사상 탄압(금서 지정, 문자의 옥)
- ② 회유책 : 만한 병용제(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임명) 실시, 과거제를 통해 한족 등용, 한족 지식인의 포섭을 위해 대규모 편찬 사업 실시(“사고전서” 등 → 반청 사상 통제 목적도 지님)
- ③ 지방 통치 : 한족은 군현제로 통치, 몽골·티베트·신장 등은 토착 지배자를 통해 지배

(3) 쇠퇴 : 18세기 말 백련교의 난 발생, 팔기제의 한계 노출 등 → 세력 약화

FINAL CHECK!!

● 삼번의 난(1673~1681)

청의 중국 정복에 협조한 공으로 번왕으로 봉해진 한인 무장 오삼계 등이 일으킨 반란이다. 강희제가 독자적으로 세력을 유지하는 번의 폐지를 명하자, 이에 반발한 오삼계, 경정충 등이 무장봉기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다.

▣ 명 · 청대의 사회와 경제

(1) **신사층의 성장** : 명대에 학교와 과거제 결합으로 신사층 형성, 세금 징수·치안 유지·향촌 교화 등에 참여, 각종 특권(요역 면제, 가벼운 형벌 면책 등), 대토지 소유, 고리대·공공사업 감독·세금 납부 대행 등으로 이익 추구

(2) **경제 발전**

- ① **농업** : 창장강 중류(명대)·상류(청대)가 곡창 지대로 발달, 외래 작물 전래(옥수수, 고구마 등), 상품 작물 재배(차, 면화, 담배 등) → 인구 증가에 영향
- ② **상공업** :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발달, 면직물·비단·도자기 등 → 쑤저우, 항저우 등 대도시 발달, 중소 상공업 도시와 정기시 성장, 대상인(산시 상인, 휘저우 상인 등) 성장(회관, 공소 등의 결성으로 이익 도모)
- ③ **대외 무역**

명대	초기 해금 정책 실시, 주변 국가들과 조공 무역 전개(명과 무로마치 막부의 감함 무역 전개 등) → 16세기 후반 이후 해금 정책 완화
청대	해금 정책 시행 → 타이완 반청 세력 진압 후 해금 해제, 상인의 해외 진출 허용, 18세기 광저우에 공행 설치 (서양 상인과 제한된 무역)

④ **동서 교역 확대** : 이슬람 상인의 활동 및 서양 상인의 진출로 교역망 확대(중국 동남 해안,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연결), 비단·차·도자기 수출, 일본과 아메리카산 은의 대량 유입 → 은으로 세금 납부(명의 일조편법, 청의 지정은제)

FINAL CHECK!!

▶ **일조편법**

명 말기의 재상 장거정이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토대로 확대 실시한 제도로, 수십 가지에 달하던 세금을 통합하여 각 호의 토지와 성년 남자 수에 따라 은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 **지정은제**

청대에 실시된 수취 제도로, 정세(인두세)를 지세(토지세)에 포함시켜 은으로 징수하게 하였다. 강희제 때 인정 수를 고정 시킨 뒤에 시행되었고, 옹정제 때에 이르러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명·청대의 문화

- (1) 학문 : 명대에 관학인 성리학을 비판하며 양명학 등장, 실용적 학문 발달(“천공개물”, “본초강목”, “농정전서” 등 편찬) → 청대에 고증학·공양학 발달, “사고전서” 등 편찬
- (2) 서민 문화 : 명대 “삼국지연의”·“수호전”·“서유기” 등 인기, 청대 “홍루몽” 유행·경극 성행
- (3) 서양 문물 유입 : 명 말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서양 학문 소개(무기 제조, 천문, 지리 등), 마테오 리치의 활동(‘곤여만국전도’ 제작,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 간행) → 청대 아담 샬의 활동(역법 개정 등), 전례 문제로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되면서 서양과의 교류 위축

(가)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가)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침략한 이후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가)의 사람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광산에 투입되었고, 거기에서 상당수가 죽어 나갔습니다.



- ① 상수시 궁전을 축조하였습니다.
- ②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 ③ 루이 14세가 콜베르를 등용하였습니다.
- ④ 펠리페 2세가 무적함대를 이끌었습니다.
- ⑤ 포르트르 대제가 서유럽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원 :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 유럽 세계의 변화 - 신항로 개척, 에스파냐의 절대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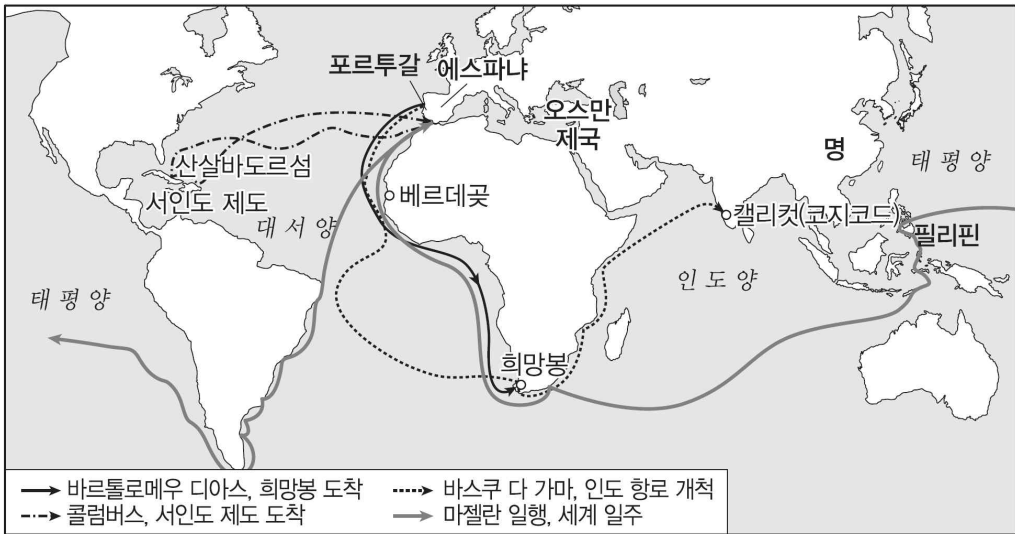
▶선지 분석

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② 1757년에 발발한 플라시 전투는 인도 지배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영국이 승리하였다. ③ 프랑스, ⑤ 러시아에 대한 설명이다.

PLUS CHECK!!

▣ 유럽의 신항로 개척

- ① 주도 :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신항로 개척 주도)
- ② 신항로 개척
 - 포르투갈의 후원 :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도착, 1488), 바스쿠 다 가마(인도 항로 개척, 1498)
 - 에스파냐의 후원 : 콜럼버스(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 도착, 1492), 마젤란(그의 일행이 세계 일주 성공, 1522)



FINAL CHECK!!

▶ **아메리카**

아메리카에 먼저 도착한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도라고 생각하였지만, 나중에 온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본떠서 ‘아메리카’로 부르게 되었다.

▶ **마젤란**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원주민과의 전투 중에 사망하고 남은 일행이 항해를 계속하여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 귀환함으로써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1522).

▣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변화

①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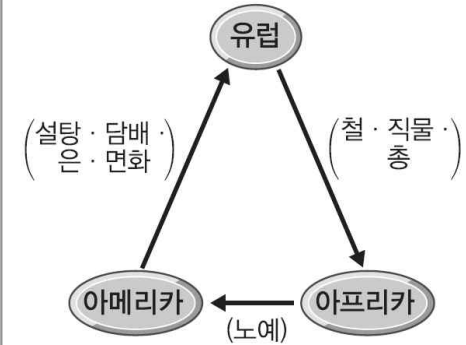
- 아스테카 문명 : 멕시코고원 일대, 테노치티틀란(수도), 그림 문자 사용, 피라미드식 신전 건설 → 에스파냐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파괴
- 잉카 문명 : 안데스고원 일대, 쿠스코(수도)에 거대한 태양 신전 건설, 새끼줄 매듭(키푸)으로 정보 교환 → 에스파냐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

② 아메리카의 변화 : 수탈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해 원주민의 수 급감, 유럽인의 대농장 운영(사탕 수수와 담배 등 재배, 원주민의 노동 및 아프리카인의 노예 노동 이용)

▣ 유럽 교역망의 확대

- ① 교역망의 확대 :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
- ② 삼각 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교역의 발달 : 노예 무역 성행, 세계 교역망의 통합(아메리카의 은이 매개체)
- ③ 금, 은 등 귀금속의 유럽 유입 → 유럽 물가 급등(가격 혁명)
- ④ 유럽의 경제 성장(상업 혁명 →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

▶ 대서양 삼각 무역



▣ 서유럽의 절대 왕정

에스파냐	펠리페 2세 : 레판토 해전(1571)에서 오스만 제국 격파, 포르투갈을 병합하는 등 성장 → 영국에 무적함대 패배, 가톨릭 강요 정책(→ 네덜란드 독립) 등으로 국력 쇠퇴
영국	엘리자베스 1세 : 영국 국교회 확립,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설립
프랑스	루이 14세 : ‘태양왕’, 중상주의 정책 실시(콜베르 등용), 베르사유 궁전 건축 →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 심화, 낭트 칙령 폐지(1685)로 인한 위그노의 해외 망명 증가 등으로 산업 위축

원료를 수입하는 자국 선박 보호

식민지 획득

완성품 수출

공장 건설

도량형 통일

도로 정비

원료 수출 금지

완성품 수입 금지

모든 무역에서 국내 제조 공업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수입할 때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국외에서) 제조되어 들어오는 상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며, 국내 공업 제품의 출국세를 경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콜베르의 의견서(1664) -

▣ 동유럽의 절대 왕정

특징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부진하여 시민 계급 성장 미약, 농노제 강화, 계몽 전제 군주 출현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 : 계몽 전제 군주, ‘국가 제일의 공복’을 자처하며 산업을 장려하고 내정 개혁 추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끝에 쉐레지엔 차지, 러시아·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 점령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트르 대제 : 서유럽화 정책 추진(서유럽 기술과 문물 적극 수용), 북방 전쟁 승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음,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 예카테리나 2세 : 계몽 전제 군주로 자처하며 내정 개혁 추진, 프로이센·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 점령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인물 카드



(가)

- 생몰 연도: 기원전 259 ~ 기원전 210
- 주요 활동
 - 전국 시대 통일
 - 화폐 · 도량형 · 문자 통일
 - 분서갱유 단행

- ① 균전제를 실시하였다.
- ②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 ③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 ④ 과거에 전시를 정례화하였다.
- ⑤ 균수법과 평준법을 시행하였다.

▶단원 :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주제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진(秦)

▶선지 분석

① 균전제는 485년 북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③·⑤ 한 무제, ④ 송 태조 조광윤의 업적이다.

PLUS CHECK!!

▣ 진(秦)·한(漢) 제국의 성립과 발전

(1) 진(秦)의 중국 통일(기원전 221) : 법가를 바탕으로 한 개혁(상앙 주도)으로 국력 증대 → 6국을 정복하여 통일 완수

① 진시황제의 정책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군현제 시행(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관리 파견), 전국에 도로 건설, 화폐·도량형·문자·수레바퀴의 폭 등 통일, 분서갱유(사상 통제, 비판 세력 제거)
- 대외 팽창 : 흉노 축출 후 만리장성 축조, 광둥 지역 등까지 영토 확대

② 멸망(기원전 206) : 가혹한 법치와 수차례의 대규모 토목 공사 실시 → 백성의 불만 고조 → 진시황제 사후 진승·오광의 난 등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하여 멸망

(2) 한의 건국과 발전

① 성립 : 한 고조(유방)가 장안에 도읍(기원전 202)

② 한 고조의 활동 : 군국제 실시(군현제와 봉건제 절충), 흉노에 물자 제공으로 평화 유지

③ 한 무제의 활동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군현 확대,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유교 통치 이념 확립(유교의 관학화, 오경박사 설치, 태학 설립 등)
- 대외 확장 : 흉노 토벌,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 남월(남비엣)과 고조선 정복
- 경제 안정책 : 잦은 대외 원정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 소금과 철의 전매제, 균수법·평준법 실시(물가 조절), 오수전 주조·유통

④ 쇠퇴 : 한 무제 사후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 → 외척 왕망이 신을 건국하고(전한 멸망) 토지 국유화·노비 매매 금지 등 개혁 실시 → 호족들의 반발

FINAL CHECK!!

▶ 진승·오광의 난

기원전 209년 국경 수비 병력으로 징발된 진승과 오광이 목적지까지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없어 처형될 상황에 놓이자 무리를 이끌고 일으킨 반란이다. 당시 진의 법률이 가혹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균수법

중앙에서 거두어들인 지방 특산물을 값비싼 곳에 옮겨 팔아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재정 강화를 도모한 정책이다.

▶ 평준법

중앙에서 각지의 물자를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 물가를 조절하고 재정 강화를 도모한 정책이다.

밑줄 친 '나의 영토'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신의 사랑을 받는 자 나 아소카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영토
모든 곳에서 나의 관리들은 여러 가지 공무와 함께 다르마*를
지도하는 목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그들의 관할 구역을) 빠
짐없이 돌아보아야 한다.

- 암벽 칙령 -

* 다르마: 인도의 전통 사상에서 나타나는 종교, 도덕, 의무, 법, 관습,
보편적 진리 등이 합쳐진 개념

- ① 예니체리에 편성된 병사
- ② 스와라지를 요구하는 군중
- ③ 지구라트를 축조하는 일꾼
- ④ 앙코르 와트를 방문하는 왕족
- ⑤ 상좌부 불교를 신봉하는 신자

▶단원 :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

▶주제 : 불교의 탄생과 인도의 고전 문화 - 마우리아 왕조(기원전 327 ~ 기원전 180)

▶선지 분석

① 오스만 제국, ② 1905년 인도국민회의의 4대 강령, ③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대 신전, ④ 12세기 크메르 제국 시기에 축조된 사원이다.

PLUS CHECK!!

▣ 마우리아 왕조의 발전

- ① 건국 배경 :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군이 인더스강 유역 침공
→ 사회 혼란, 통일 자극
- ② 건국 : 기원전 4세기경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인도 북부 통일
- ③ 전성기(아소카왕)
 -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
 - 불경을 정리하고 산치 대탑과 같은 불탑(스투파)과 석주(돌기둥) 건립
 - 상좌부 불교 발달 : 개인의 해탈 강조, 동남아시아에 전파
- ④ 쇠퇴 : 아소카왕 사후 급격히 쇠퇴, 이민족의 침입 → 분열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 아소카왕의 석주 비문 -

FINAL CHECK!!

▶ 산치 대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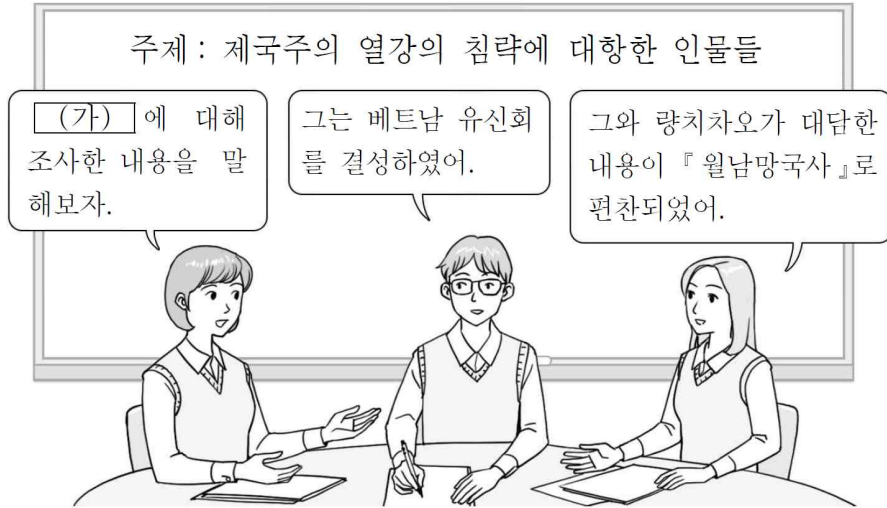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 세운 탑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탑으로 알려져 있다.

▶ 아소카왕 석주의 사자상



아소카왕은 전국 각지에 석주를 세우면서 그 꼭대기에는 불교의 교의를 뜻하는 법륜(수레바퀴)을 새겨 넣고 사자, 소 등을 조각하였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탄지마트를 추진하였다.
- ②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와하브 운동을 이끌었다.
- ④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였다.
- ⑤ 세포이의 항쟁에 참여하였다.

▶단원 :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주제 :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선지 분석

① 오스만 제국, ③ 압둘 와하브, ④ 일본의 근대화 운동, ⑤ 세포이 항쟁은 인도의 민족 운동이다.

PLUS CHECK!!

▣ 인도와 민족 운동①

(1) 영국의 인도 침략

- ① 배경 : 잦은 정복 전쟁, 재정 파탄, 지방 세력의 반란 등으로 인한 무굴 제국의 쇠퇴
- ② 과정 : 동인도 회사의 활동 → 플라시 전투(1757, 영국이 벵골·프랑스 연합군 격퇴) 후 벵골 지역의 통치권 장악

(2) 세포이의 항쟁

배경	영국의 식민 통치와 착취, 세포이의 종교적 반발
전개	세포이의 봉기(1857) →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력 진압 → 무굴 제국 황제 폐위 → 인도 통치 개선법 제정(1858) →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 박탈 → 영국령 인도 제국 성립(1877,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 황제 겸임)

(3) 인도의 근대화 운동

- ① 배경 :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의 등장, 민족 자본가 성장
- ②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 람 모한 로이 중심, 19세기 전반 순수 힌두교 교리로의 복귀 등 종교 운동으로 출발하여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 카스트제 반대·사티 등 폐습 타파 주장

▶ 세포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채용된 인도인 현지 용병을 부르는 명칭이었다.

▶ 인도 통치 개선법(1858)

세포이의 항쟁 이후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의 인도 통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법이다.

▣ 인도의 민족 운동②

③ 인도 국민 회의

- 결성 : 영국이 인도인 회유를 위해 정치 조직 결성 지원 → 지식인, 관리, 민족 자본가, 지주 등의 주도로 결성(1885)
- 초기 활동 : 영국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 확보에 주력
- 반영 운동

배경	영국이 서벵골(힌두교도 다수)과 동벵골(이슬람교도 다수)로 분리 통치하고자 벵골 분할령 발표(1905)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 조장, 인도인을 분열시키고 민족 운동을 약화시키고자 함
전개	틸라크 등이 주도한 콜카타 대회에서 스와라지(자치)·스와데시(국산품 애용)·영국 상품 불매·국민 교육 진흥의 4대 강령 채택 → 영국이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을 후원하여 인도 국민 회의와 대립 조장
결과	벵골 분할령 취소(1911),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인정

벵골 분할에 벵골인은 아주 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인의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언젠가는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내가 아는 바로는 스와데시는 몇 년 전부터 뭄바이에서 존재해 오던 것입니다. 나는 자유 무역주의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데시가 경제적 혼란 상태에 있는 인도에서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도 국민 회의 콜카타 대회의 의장 나오로지의 연설 -

▣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태국 (라마 5세)	짜끄리 왕조의 적극적 근대화 정책 → 영국과 프랑스 세력 사이의 완충 지대로 독립 유지
베트남 (판보이쩌우)	동유 운동 전개(청년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 근대 문물을 배우도록 함) → 신해혁명에 자극을 받아 중국 광둥에서 베트남 광복회 결성 → 프랑스에 대한 무력 투쟁 주도
필리핀 (호세 리살)	“나에게 손대지 마라” 저술(에스파냐의 가혹한 식민 통치 고발) → 에스파냐인과 동등한 대우 요구, 필리핀 연맹(필리핀 민족 동맹) 결성(1892)

▣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1) 오스만 제국의 민족 운동

- ① 배경 : 오스만 제국의 쇠퇴, 오스만 제국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 ② 근대화를 위한 노력

탄지마트 (1839~1876)	근대적 군대 양성, 행정 개편, 신교육제 도입 → 지방 세력과 구식 군인의 반발로 개혁 성과 미흡 → 미드하트 파샤 주도로 근대적 헌법 제정(내각 책임제 실시 등) → 보수 세력의 반대와 러시아·튀르크 전쟁 패배로 좌절
청년 튀르크당의 활동(1908)	장교, 관료, 지식인 등이 중심이 되어 무장봉기를 통해 정권 장악 → 헌법 부활, 여성 차별 철폐, 근대 시설 확장, 교육과 세제 개혁 추진 →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 피지배 민족의 반발 초래

(2) 아랍과 이란의 민족 운동

와하브 운동	이슬람교 순화 운동(‘쿠란으로 돌아가라.’) → 와하브 왕국 건설 →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 → 사우디 왕국으로 부활
이란의 민족 운동	카자르 왕조의 쇠퇴 →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 → 영국이 담배 독점권 획득 → 아프가니가 담배 독점권 반환 촉구 운동 호소 → 이란의 상인과 이슬람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담배 불매 운동 전개 → 헌법 제정(1906)

FINAL CHECK!!

▶ 판보이쩌우와 월남망국사



“월남망국사”는 중국의 량치차오와 판보이쩌우가 만나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이다.

▶ 탄지마트

1839년부터 1876년까지 오스만 제국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이다. 외세의 압박과 내부의 분열로 맞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군사 제도를 정비하였다.

▶ 미드하트 파샤

오스만 제국의 재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회 설립과 내각의 권한 강화, 근대적 헌법 제정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